

# 탈당 발걸음 주춤... 쏠대가 두번째 고비

## “나의 탈당은 스스로에게 내리는 해고 통보”



염동연의원 탈당 성명

열린우리당 염동연 의원(광주 서갑·사진)이 30일 탈당에 앞서 탈당 배경과 소회를 밝히는 독특한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 눈길을 끌고 있다.

염 의원은 2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중도개혁 통합신당 건설을 위한 새로운 길을 떠나며'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이윤을 창출하지 못한 기업은 파산의 운명을 피할 수 없듯이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정당은 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며 우리당의 발전적 해체를 주장하는 한편, 자신의 탈당에 대해 "스스로에게 내리는 해고 통보"라고 정의했다.

염 의원은 특히 자신의 처지를 TV 드라마 '주몽'의 내용에 비유, "흠어진 옛 고조선의 유민들을 모아 한나라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와 함께 "강철검은 백성의 마음 속에 있으며 이 나라를 구할 새로운 주몽을 기다리며 길을 떠난다"는 소회를 털어냈다.

염 의원은 이어 "중도개혁 통합신당 건설과 새로운 대안세력의 정권창출에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모든 중도개혁주의 세력과 양심적 시민사회세력, 건전한 전문가 그룹이 제3지대에 모여 새로운 통합신당 건설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염동연 의원은 30일 중앙당에 탈당계만 제출한 뒤 광주를 방문, 지역구민과 당원들을 만난 뒤 고향인 보성에서 체류할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與 중앙위 기간당원제 폐지 압도적 가결

### 당헌 개정안 통과로 탈당 명분 약해져 신당과 “전대 의미 없다”... 개최 불투명

열린우리당의 '탈당 도미노'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29일 중앙위원회의에서 기간당원제를 폐지하고 기초당원제를 도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당헌 개정안이 찬성 62표, 반대 1표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된 데 이어 전당대회 의제 문제로 전대준비위의 합의대로 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기 때문이다.

탈당의 가장 큰 명분이었던 당헌 개정안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다음달 14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의 개최 가능성도 커졌다.

특히, 이날 중앙위원회의에서 당헌 개정안이 압도적 표차로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탈당을 저울질했던 일부 의원들도 명분이 약하다는 점에서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임종인, 이계안, 최재천, 천정배 의원으로 이어지던 탈당 도미노 현상도 30일 염동연 의원을 마지막으로 일단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탈당 쪽으로 향하던 광주·전남지역 여당 의원들의

발걸음도 주춤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연쇄 탈당으로 분당의 위기까지 치달았던 여당의 분위기가 중앙위원회의를 계기로 급속하게 전당대회 개최 방향으로 선회했으며 더 이상 탈당 행렬이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강경 신당과 의원들을 중심으로서는 중앙위의 당헌 개정안은 탈당의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본질적인 흐름을 제어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즉, 당헌 개정안은 탈당의 본질이 아니며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한 통합신당은 어렵다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어 전대 이전 탈당 행렬은 계속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사수파와 신당파의 불신의 골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당대회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상태라는 점에서 연쇄 탈당의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당내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정동영 전 의장이 이날 기초당원제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당 사수파를 '기권권 사수파'라며 "이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밝힘에 따라 전당대회 개최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30일 오전 열리는 '희망 21', '실사구시', '국민의 길', '안개모' 등에 속한 강경 신당과 의원들의 회동 결과와 그동안 탈당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비쳐왔던 김한길 원내대표의 결단이 주목받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중앙위원회의의 압도

적인 당헌 개정 결정으로 연쇄 탈당 흐름은 주춤할 전망이다"이라며 "그러나 김한길 원내대표가 탈당을 결행하고 신당과 의원 모임에서 탈당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다면 열린우리당의 실질적인 분당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열린우리당 김근태 당의장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개최를 선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기간당원제를 폐지하고 기초·공로 당원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이 의결됐다. /연합뉴스

## 이젠 實利다

<10> 도시 경쟁력, 시민 친절부터

# 일류도시 가는 지름길 서비스 마인드 높이자

'뒤따라 오는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가, 혼잡한 길에서 서류봉치를 떨어뜨렸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

세계적 월간지 리더스다이제스트가 지난 해 세계 35개 도시의 친절도를 조사한 적이다.

서울은 조사대상 중 40%만 친절한 반응(세계평균 55%)을 보여 32위로 세계적인 칭찬을 당했다.

그렇다면 우리의 친절도는 어떨까?

대형 빌딩 현관에서 지켜보자. 과연 광주시민 10명 가운데 몇 명이 뒤에 오는 이들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지?

최근 광주시가 조사한 '시민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불친절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택시의 과속·난폭운전도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공무원의 친절도는 최근 5년 동안 약간씩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5점 만점에 3.5점 정도 수준이어서 분발이 요구되고 있다.

해마다 광주를 찾는 기업인이나 관광객은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광주에 머무는 사람은 방문객의 증가 추이를 따르지 못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전 기업도 증가하고 있지만 직원의 가족 전체가 이사하는 경우는 그나마 드물다고 한다.

KTX개통 등으로 교통여건이 좋아져 서울과 지방의 체감거리가 줄어든데다 기업환경과 교육·의료·문화 등 생활 전반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중앙지역이 기업과 인력마저 블랙홀처럼 흡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광주는 다른 광역시와 경쟁하는 것은 물론 서울 등 수도권과도 정면대결을 벌여야 할 상황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산업 인프라에서 찾는 경향이 짙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도시인 뉴욕 등 유명 도시들은 도시 경쟁력의 요소로 도시 시설 보다는 '친절'을 우선시 한다.

이제 우리도 친절은 행사시에만 벌이는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사회간접자본 이상의 가치를 갖는 광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임을 명심해야 한다.

나주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광주 시·전남도 등과의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에서 지역민들이 자신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달한 바 있다. 공동혁신도시의 성공 여부는 이전기관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온전한 이주를 하느냐에 달렸다.

수조원의 부가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공동혁신도시의 성공도 결국은 우리의 친절과 서비스마인드에 달려 있는 셈이다.

고객을 대할 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객을 대하는 것과 물건을 팔기 위해 억지 웃음을 짓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광주도 이제 친절과 서비스 마인드에 대한 인식부터 완전히 바뀌어야 할 때다. 외국인과 방문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친절과 서비스 마인드를 높인다면 기업 유치는 물론 일류도시로 가는 길도 멀지 만은 않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 방문객 늘었지만 '머무는 관광객' 제자리 광주·전남혁신도시 성공, 시민 마인드에 달려



### 민주노동당 전남도당

### 이수근 위원장 재선임

민주노동당 전남도당 제3기 위원장에 이수근(사진) 현 위원장이 재선 임됐다. 부위원장은 전종덕 전 전남도의원이, 사무처장에는 성인 현



투표의 91.7%, 전 부위원장은 94.0%의 지지를 각각 얻었다.

### 처장이 당선됐다.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직접 또는 인터넷을 통한 전 당원 투표 결과 이 위원장은 유호

###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사태 해결

비상대책위 집행위원장과 순천시지 역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이 위원장은 "지역위원회에 교육위원회를 설치, 당원 교육을 강화하고 농민당원 확대와 민생사업에 주력해 정책·민생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영어교육전문학교  
윤선생영어교실

# 윤선생에서 시작하세요!

## 소득과 여유로 앞서갑니다!

**연소득 1억 3천만 원과 해외연수. 다음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영어교육 전문기업에서 안정적인 고소득과 생활의 여유로 앞서갈 수 있는 달다운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선배인 일해청 상담 선생님은 활동한 지 4년 만에 연소득 1억 3천만 원, 포상으로 해외연수도 다섯 번을 다녀왔습니다. 성실함과 열정, 마이클 사관하는 마음만 가져오십시오. 교육업계 최고 수준의 지원 시스템을 통해 당신을 최고의 선생님이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윤선생영어교실** **당해입 상담 선생님**

2002년 상담 선생님이 시작, 2006년 연소득 1억 3천만 원, 5년 연속 해외연수 5번, 2007년 연소득 1억 3천만 원 목표.

**윤선생영어교실 상담·관리 선생님 모집**

- 부문: 상담 선생님(토익90점), 관리 선생님(영어·판공속 전담관리)
- 자격: 영어교과에 뜻이 있는 분, 교육업계 종사자 우대
- 접수: [www.yoons.com](http://www.yoons.com) •자문전화: 1588-0594

**수입과 여유는 Up, 업무는 간편하게 Down**

1. 실적이 두배에 육박한다면 해외연수 기회
2. 미비한 복지 제도를 통한 해외연수 만족률 지평
3. 주 5일 휴일자리 활동 보충금, 관리 권한 가능
4. 대기업 수준의 관리 시스템 지원

5. 전국으로 분산된 선배 강사료 지급
6. 선배로부터 1년 무상/유급 가족 컨설팅까지 지원
7. 민중특별 프로그램으로 통한 소득 증대 기회 제공
8. 선생님의 학습능력 향상 교육지원(PATAC, IT)